

동방의 성인  
多夕 류영모의 삶 ②

오산학교장에 취임하였다.

류영모는 1910년 교사로 오산학교에 왔을 때도 奇行으로 오산의 신화를 창조하였다. 엄동에도 냉수마찰을 하고, 식사는 과식하는 일이 없고, 시간약속은 어기는 일이 없고, 요한복음 설교의 감동은 10년이 지나도록 전해오고 있었다.

교장 류영모는 더 나아가 교장실 회전의자를 치우고서 보통의자의 등받이를 잘라버린 그 위에 널판지를 깔고 꿰어앉아서 집무하였다. 修身을 가르치는데 일본교과서는 건드리지도 않고 자신이 고른 세계적인 사상가와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가르쳤다. 학교장이 자기가 자는 방에 땀 장작을 쪼개고 손수 굴불을 때었다. 학생들의 생년월일을 물어서 이제까지 살은 날수를 셈하여 주었다.

日帝는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인 柳明根의 아들 류영모도 오산학교장으로 부적합하다고 교장인준을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오산학교 교장 1년만에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름 밤에 오산 학교서 고을역까지 집을 나르는 학교사환과 걸어 가는데 뜻밖에 咸錫憲이 어떻게 알고 따라왔다. 함석헌은 오산학교 졸업반 학생이었다. 류영모는 함석헌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여주는 끝에 “이번에 오산에 온 것은 함군을 만나러 왔나봐”라고 하였다. 함석헌은 그 말을 일생 잊지 않고 있었다.

함석헌은 그 때 류영모를 스승으로 만나서 생애에 단층을 이루리만큼 비약적인 정신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함석헌은 언제나 류영모를 “선생님”이라고만 불렀다. “류선생님”이라고 하면 류달영을 말하였다.

## 6. 기독교청년회 연경반 강좌를 맡다.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YMCA)의 기동이라할 월남 李商任가 1927년 별세하였다. 이상재가 없으니 이 나라가 텅빈 것 같은데 더구나 몸담고 있었던 YMCA야 말할 것이 없었다. YMCA에서는 이상재가 없는 빈 자리를 메울 인물을 찾았다. 거기에 류영모가 점찍혀졌다. 류영모의 나이는 아직 40살의 不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류영모는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진 정신인이었다. 일찍 기미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지은 육당 崔南善이 류영모를 경외하여마지 않았던 것이다.

최남선은 그때 이 나라 굴지의 학자였다. YMCA간사인 현동완은 YMCA초대 총무였던 삼성 金貞植의 추천을 받아 류영모를 YMCA연경반 강사로 초빙하였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기독교청년회관(YMCA)에서 얘기를 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정신이 이 내 정신을 보고 꼭 가라고 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학교공부를 하여야 하고 무슨 지위를 바라는 것은 한낱 꿈이 아니겠습니까.”

류영모는 YMCA 총무 현동완 및 몇 회원과 함께 日帝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이 패전의 위기에 몰려 발악을 하던 때도 몰래 모임을 계속하였다. 그 모임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모임이었다. 모임이라기 보다는 그대로 독립운동이요 독립전쟁이었다.

YMCA연경반 모임을 거쳐간 사람은 30여년 동안 수 천명은 될 것이다. 도무지 주소록조차 만든 일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다. YMCA모임에서 함석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류영모의 사상을 들을 수 있었다. 필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함석헌은 이 모임에서 류영모의 강의를 듣고 일본의 우치무라간조(内村鑑三)의 무교회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었다. 함석헌은 “일주일동안에 선생님만큼 정신적인 생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말하였다. 金興浩, 廉洛駿, 柳承國 등은 YMCA강좌만 가지고는 모자라 자하문 밖 류영모의 집으로까지 찾았다.

YMCA총무 현동완은 류영모를 지극히 존경하였다. 류영모가 회갑잔치를 하지 않자 YMCA에서 2만2천원 기념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현동완은 늘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도 성인이 한사람이라도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현동완은 류영모의 성인다운 모습에 매료되어 성심껏 받들었다. 현동완의 바람과 성심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류영모는 30여년 동안 YMCA강좌를 하면서 언제나 구기리 집에서 종로까지 걸어다녔으며 시간을 어긴적이 없었다. \*

朴永浩 — 다석사상연구위원, 다석선생에게 직접 師事, 著書 “씨알의 말씀”, “다석 류영모의 생각과 믿음”, “다석 류영모의 기독교사상” 등